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이중 매개효과*

이민영** · 강지영***

본 연구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이중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의 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의 조사 시점은 2015년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제외하고, 연구에 필요한 모든 문항에 응답을 완료한 중학교 1학년 5,36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쳐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넷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이중 매개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시기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대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학생의 심리적 요인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증진하며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상담개입 및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유학기제, 진로성숙도,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학업스트레스

논문 투고일: 2025. 10. 23.

최종심사일: 2025. 11. 14.

게재확정일: 2025. 12. 26.

*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함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ang, Ji Young, Room 511, Sae Him Hall, 100 Ceongpa-ro 47-gil, Yongsan-gu, Seoul, Korea. 04316. E-Mail : jykang@sookmyung.ac.kr

I. 서론

진로교육은 진로발달이라는 개인적 차원과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봉환, 2023).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정책은 2015년 「진로교육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후 학교교육 및 행정 전반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도입되었으며,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 방향의 조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중학교 교육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정책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지필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토론 및 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과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교육부, 2015). 특히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를 적용한 것은 이 시기의 진로 탐색 활동이 향후 고등학교 진학과 대입 전공 선택에 이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박보경·배상훈, 2019).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중학교 시기의 진로 인식과 진로 탐색 경험은 이후 고등학교 시기를 포함한 청소년기 진로성숙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소영·정혜원, 2022; 임현정, 2022; 최인희, 2019). 진로성숙도는 특정 연령에서 수행해야 하는 진로 발달 과업을 얼마나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Super, 1955), 중학교 시기에 진로 탐색과 경험은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 결정과 직업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소영·정혜원, 2022; 서봉언·이수민·조승우·김경식, 2013). 하지만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거나 자기주도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때이다. 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정보와 진로 지도가 필요함에도 교육 자원과 인프라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여 교육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서의 자유학기제가 충실히 이루어져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 탐색과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후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고등학교 시기 진로발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자유학기제와 같은 진로 관련 교육정책이 확대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 진로 관련 대화와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박찬호·김선미·유신복, 2021).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가 진로를 탐색하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학습 동기와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정경화·김기승, 2018; 이뿐새, 2017; 최

윤정·김지은, 2012).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진로 탐색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비난, 부정적인 피드백만을 준다면 이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를 높이고 진로 탐색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 변인으로 주로 양육태도, 애착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평소 일상에서의 대화 및 함께 하는 시간 및 활동을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육태도나 애착과 같은 변인은 자녀의 과거 경험에 대한 회고적 보고에 주로 의존하며, 시간에 따른 관계의 변화 과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이영광·양인준·이승엽, 2019, 조아라, 2013; 설희연·김계현, 2007; Sharf, 2006)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학교 및 일상에 관한 대화, 여가나 취미의 공유 등 보다 역동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의 과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양방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녀의 진로성숙에 더욱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중학교 시기는 부모의 양육 태도나 지원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자로서 자율성을 존중받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진 과제나 과업을 성취하며 유능함을 느낄 때, 흥미나 내적 만족감이 증가하고 자기조절을 통해 스스로가 세운 목표 행동을 성취해 내고자 하는 자기결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김하영·강한솔·한윤선, 2018). 자기결정성은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동기로 청소년의 진로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김하영 외, 2018; 여태철, 2015). 또한 자기결정성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을 완화시키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과업 수행능력, 심리적 건강과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경선, 2019).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 및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간다. 관계성 및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통해 성취 지향성,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심리적·인지적 자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Peterson & Bush, 2003), 이는 자기결정성 동기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진로성숙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박소영·정혜원, 2022; 홍윤경, 2021) 선행연구들 가운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영향과 개인 내적 특성인 자기결정성 동기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기대수준이나 관여가 무리한 수준일 때 자녀는 일정 수준

의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학습저하 및 긍정적, 적응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정유미 · 김혁곤, 2002). 자녀가 부모와 맺는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도 감소한다는(김유정 · 이은미, 2016; 이한열, 2010; Cohen & Will, 1985; Grotevant, 1998) 연구결과들도 다수 보고되었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혁과 박재우(2019)의 연구에서 중학생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학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박지현, 2020; 조민제, 2010)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부모나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높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낮아진 학업스트레스는 곧 심리적 안정감으로 연결되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두 변인 간 인과관계와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보다 두 변인 간 상관관계와 두 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 내 환경 요인으로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및 학업스트레스의 역할에 주목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자유학기제 정책은 학생의 진로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와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관련지어 탐색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김리나, 2024).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정보 능력과 준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성숙의 의미는 Super(1955)의 이론으로부터 직업성숙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 ‘성장기에서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를 거쳐 쇠퇴기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이 속해 있는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 과업의 준비도’로 정의되었으며, Crites(1978)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 정도로 동일 연령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 준비 정도라고 하였다(임정미, 2019).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요구되는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황매향·임은미, 2004).

자유학기제는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또는 인지적 영역의 발달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성과가 다수 보고되어 왔다(조성경·김민제·박근아·서정은·이보미, 2018; 김동심, 2017; 신철균·박민정, 2015).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자유학기를 경험한 후 진급한 학생들이 진로의식수준과 진로개발 등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문찬조·정동욱, 2020). 한편, 자유학기제 시기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일부 확인되었다.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밝혔다(김위정, 2017).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조성경·김민제·박근아·서정은·이보미, 2018), 자유학기에 참여하는 교사 비율이 높을 경우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자유학기제 참여 경험이 진로성숙도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필남, 2020).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역이나 자료의 특성 등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2.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녀의 미래의 목표 설정이나 진로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대화를 통한 상호 의견 교환이 가능한 상태까지 광범위하게 정의된다(이선영 · 송주연, 2019; 구본용 · 유제민, 2010). 여기서 상호작용의 의미는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이는 한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모두 영향이 나타나야 한다(도미향 · 김은영, 2024). 한국교육중단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취미나 여가활동, 독서·사회문제에 대한 대화, 학교 및 일상에서의 관심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김양분 · 남궁지영 · 박경호 · 최인희 · 김미숙 · 강호수, 2016).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인지·정서·사회적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인 영향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자극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성현 · 백현옥, 2020).

초기 청소년기는 진로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부모의 충분하고 적절한 지지로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경화 · 김기승, 2018; 최윤정 · 김지은, 2012). 청소년이 고민하는 진로에 대해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가 청소년에게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방향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다. 반면, 부모와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서적, 혹은 정보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진로를 설정하는 시기에 부모의 비난 등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닌 채 성인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전미리 · 김봉환, 2015). 진로발달이론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진로이론 학자인 Roe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심리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는 이러한 심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진로 선택을 한다고 하였다(황매향 · 임은미, 2004). 이러한 Roe의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어졌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대화 및 함께 하는 시간과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은 진로발달과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이문희 · 신효정, 2015; 이현림 · 김순미, 2007;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또한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과 선택 과정에서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진로결정에 있어 자신감, 독립심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경, 2001). 따라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개입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 변인의 매개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자기결정성이론(SDT)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기결정성을 인간 동기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의 다섯가지 유형과 동기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주목해왔다(김민성 · 신택수 · 허유성, 2020). 주로 학습영역에서 이론의 적용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섯 가지 유형의 동기(무동기, 외적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가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이문희 · 신호정, 2015). 무동기는 동기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며, 낮은 자기결정성에 해당하는 외적조절동기는 마감, 위협, 보상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김규연 · 김창대, 2024). 부과된 조절동기는 타인의 인정이나 비판을 회피를 목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외적 자극보다는 내면화된 수치심, 죄책감, 자아팽창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동기이다(Deci & Ryan, 2000). 확인된 조절동기는 학습의 가치와 중요성을 개인이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조절동기는 자기결정성 동기의 가장 높은 상태로, 외부의 보상이나 자극이 아닌 학습 자체에서 흥미와 즐거움, 만족을 느껴 자율적으로 이루는 동기이다(김하영 외, 2018). 선행연구에서는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학생은 학교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며,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등 학습 효과를 높이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학습 과정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금 학생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며,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임혜인, 2019).

최근 진로 분야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심리 내적 자기조절을 통해 과제를 선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을 통제하여 목표행동을 성취해 내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곽연옥, 2013; 류진숙, 2012; 이예진 · 이기학, 2010; 이지혜, 2009; Deci & Ryan, 2000). 개인의 진로성숙과 자기결정성 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자기

결정성이 진로성숙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이문희 · 신호정, 2015), 일부 연구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자기결정성 동기를 가지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성숙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하영 외, 2018). 자기결정성 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학습영역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진로성숙도에 관해 축적된 연구의 양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동기인 내재적 동기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백연옥 · 심혜숙, 2015), 내재적 동기는 진로 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이예진 · 이기학, 2010) 반대로, 자기결정성 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일부 보고되었다(최은혜 · 임효진, 2022).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통해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소통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이것이 다시 진로성숙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검증할 것이다.

4.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우리나라 중학생은 학령기 전환에 이어 교과와 평가 방식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학업 환경과 학습 방법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업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며, 다양한 교과별 수업에서 겪는 변화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느끼게 된다(박성희 · 김희화, 2008).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생 개인, 가정, 교사, 교우관계, 학교 특성 등과 함께 다차원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관련한 환경요소 중 부모 변인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부모의 교육기대는 자녀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정서적으로 압력이나 부담을 주어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기도 한다(김종백 · 김준엽, 2009).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가 학업과 관련하여 지나친 기대나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를 나타내거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학업 시간만을 강조한다면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관찰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박지현, 2020),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고경필·심미영, 2014). 반면, 학업스트레스가 진로 관련 고민과 탐색을 촉진함으로써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조민제, 2010). 연구 대상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가 정적 또는 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로부터의 관심, 지지 그리고 소통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진로 준비를 위한 자기 이해와 진로 계획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5.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

자기결정성 내재적동기와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부족하다. 자기결정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배병훈·신희천, 2009)와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적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은주, 2017), 자기결정성 동기가 자기조절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하은진, 2015)가 존재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인 내재적 동기에 초점을 두어,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가 외부의 보상이나 자극이 아닌 학습 자체에서 흥미와 즐거움, 만족을 느껴 자율적으로 학습을 이루는 동기임(김하영 외, 2018)을 고려할 때,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내재적 동기가 높으면 학교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며,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등 학습 효과를 높이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 과정은 학습의 질을 향상과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인다(임혜인, 2019). 또한 부모의 학습에 대한 관여가 자기결정성 동기에 영향을 미쳐, 자기조절 학습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하은진, 2015). 즉 청소년기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인지발달과 성격형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내적동기를 강화시키게 되어 학습과 성장,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홍윤경·최혜진, 2024). 따라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통한 관심과 지지, 소통이 자율적인 학습동기를 강화시키고, 강화된 내재적 동기가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진로성숙도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KELS 2013 3차년도 조사자료로 전국 17개 시·도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유학기제 정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에는 2,551교로 확대 운영되었고 조사에 참여한 학교 중 자유학기제 정책을 운영한 학교는 1,125개교 중 874개교(약78%)이다. 학교표본 1,125개를 대상으로 하여 층화군집무선 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적용하고 표본 대상을 무선 추출하였다(김양분 외, 2016).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설문지와 학습자특성 조사지의 문항들을 추출한 후 자유학기제를 미운영한 학교의 학생(n= 1,275)을 제외하였다. 주요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에 누락된 응 이 있는 학생(n=185)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한 중학교 1학 년 학생 5,36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전체 5,366명 중 남자 청소년은 2,662명(49.6%)로 여자 청소년은 2,704명(50.4%)으로 성별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 정보 중 지역규모는 중소도시 2,291명(4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도시 1,296명(24.2%), 읍·면지역 955명(17.8%), 특별시 824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분류로 국공립이 4,457명(83.1%), 사립학교 909명(16.9%)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 중 남녀공학은 3,963명(73.9%), 남학교 699명(13.0%), 여학교는 704명(13. 1%)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5,366)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662	49.6
	여	2,704	50.4
	계	5,366	100.0
학교정보 (지역규모)	특별시	824	15.4
	대도시	1,296	24.2
	중소도시	2,291	42.7
	읍·면지역	955	17.8
	계	5,366	100.0

학교정보 (설립유형)	국공립	4,457	83.1
	사립	909	16.9
	계	5,366	100.0
학교정보 (남녀공학)	남녀공학	3,963	73.9
	남학교	699	13.0
	여학교	704	13.1
	계	5,366	100.0

2. 연구도구

1) 독립변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

KELS 2013에서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항은 KELS 2005의 문항으로 ELS: 2002, PISA 2000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김양분·김성식·박성호·민병철·강상진·김현철·신종호, 2006). 부모-자녀 상호작용 문항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적 관심, 정서적 지지 및 개방적인 의사소통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지, 사소한 것도 잘 대답해 주는지, 취미나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거나, 사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4로 나타났다.

2) 종속변인: 진로성숙도 척도

KELS 2013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이해’, ‘진로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김양분 외, 2016). 먼저 ‘자기이해’는 진로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와 같은 특성을 이해하는 정도이며, ‘진로계획성’은 진로 방향 설정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계획의 정도를 의미한다. ‘일에 대한 태도’는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도로 정의된다(임현정, 2022).

일에 대한 태도 문항에서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의 3문항은 부정적 방향의 질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문항 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요인 별 각 5문항씩 총 1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의 평균값을 측정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15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78로 나타났다.

3) 매개 변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척도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문항은 KELS 2013 3차년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KELS 2013의 자기결정성 척도는 Ryan과 Deci(2000)의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Academic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SRQ-A)’를 기반으로 김아영(2002)이 제작한 ‘한국형 자기조절 설문지(K-S RQ-A)’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김양분 외, 2016). KELS 2013에서의 자기결정성 동기 문항은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각 4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 요인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된 각 문항의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신뢰도 계수는 .881로 나타났다.

4) 매개 변인: 학업스트레스 척도

KELS 2013에서의 스트레스 문항은 KELS 2005의 문항으로 임용우(1994)가 개발한 스트레스 문항 중 일부를 추출한 후 수정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다(김양분 외, 2006). 시험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 두 하위요인으로 각 4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추어 학업스트레스 4문항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 문항의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는 .804로 나타났다.

5) 통제변인: 성별,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성별과 학업성취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상의 두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김리나, 2024; 박예은·정혜원, 2021; 김정아·남궁지영, 2018; 길혜지·윤지윤, 2015; 최은희, 2015; 박미란·이지연, 2010; 박효희·성태제, 2008; 차정은·김아영·이은정·김봉환, 2007). 응답자의 성별을 파악하기 위해 KELS 2013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남자(1), 여자(2)로 측정한 결과를 남자(0), 여자(1)의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업성취의 측정을 위해 KELS 2013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능력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동해인, 2019).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국어, 수학, 영어 기초능력검사 점수(1: 기초미달, 2: 기초, 3: 보통, 4: 우수)의 세 과목 평균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8.0과 AMO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변인의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과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통한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와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χ^2 , NEI, IEL, TLI, CFI, RMSEA), 관찰 변인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인의 타당도를 검토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넷째, 잠재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χ^2 , NEI, IEL, TLI, CFI, RMSEA)와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구조모형의 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해한 후, 부트스트래핑(bootst

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총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포함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개별 및 이중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의 절댓값은 [.162~.229]이고, 첨도의 절댓값은 [1.55~3.95]로 정규성 기준에 충족하여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평균은 3.582(SD=.875)이며,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평균은 2.522(SD=.708), 학업스트레스의 평균은 2.693(SD=.997),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의 평균은 3.602(SD=.644)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N=5,366)

변수	M	SD	최솟값	최대값	왜도	첨도
부모-자녀 상호작용	3.582	.875	1.00	5.00	-.162	-.361
자기결정성내재적 동기	2.552	.708	1.00	4.00	.065	-.155
학업 스트레스	2.693	.997	1.00	5.00	-.162	-.361
진로성숙도	3.620	.644	1.13	5.00	.229	-.395

2)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80 미만인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r=.363, p<.01$), 진로성숙도($r=.411, p<.01$), 학업성취($r=.121, p<.01$)와 정적으로 유의하며,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진로성숙도($r=.372, p<.01$), 학업성취($r=.181, p<.01$)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진로성숙도는 학업성취($r=.133, p<.01$)와 성별과 학업성취($r=.123, p<.01$)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학업스트레스($r=-.239, p<.01$), 성별($r=-.046, p<.01$),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r=.244, p<.01$), 성별($r=-.47, p<.01$), 학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r=-.220, p<.01$), 학업성취($r=-.029, p<.05$)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가진다. 한편, 진로성숙도와 통제변수인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N=5,366)

	1	2	3	4
1.부모-자녀 상호작용	1			
2.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363**	1		
3.학업스트레스	-.239**	-.244**	1	
4.진로성숙도	.411**	.372**	-.220**	1

* $p<.05$, ** $p<.01$

2.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측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초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3447.994(df=1000)$

f=98), NFI=.916, IFI=.918, TLI=.899, CFI=.918, RMSEA=.080으로 다소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에 근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지수가 가장 높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측정변수 중 부모1과 부모2의 문항의 내용이 언어적 소통과 관련되어있는 유사성에 의해 통계적·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들 간 오차항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수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적합도 지수인 NFI(.947), IFI(.949), TLI(.937), CFI (.949), RMSEA (.063)의 값이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	NFI	IFI	TLI	CFI	RMSEA
1762.862***(97)	.947	.949	.937	.949	.063

***p<.00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가 해당 잠재변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개별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은 대체로 .5이상이었으나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일태도의 경우 .436으로 나타났다. 일태도는 진로성숙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5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잠재변수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경로가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1	.651	.655	.014	45.719***
	부모2	.725	.715	.014	50.315***
	부모3	.962	.810	.017	56.849***
	부모4	1.048	.765	.019	54.010***
	부모5	1	.762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동기1	1.164	.814	.021	55.738***
	동기2	1.165	.831	.021	56.790***
	동기3	1.222	.866	.021	58.776***
	동기4	1	.714		

학업스트레스	학업1	.867	.677	.019	45.028***
	학업2	.816	.637	.019	42.520***
	학업3	.877	.743	.018	48.521***
	학업4	1	.787		
진로성숙도	자기이해	1.448	.777	.048	29.977***
	진로계획	1.707	.885	.057	29.831***
	일태도	1	.436		

*p<.05, **<.01, ***p<.001

2)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chi^2=3105.760(df=128,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NFI, IFI, TLI, CFI는 모두 .90이상이며 RMSEA도 .066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	NFI	IFI	TLI	CFI	RMSEA
3105.760***(128)	.926	.929	.915	.929	.066

***p<.001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beta=.410, p<.001$)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beta=.378,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진로성숙도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또 다른 매개변수인 학업스트레스($\beta=-.198, p<.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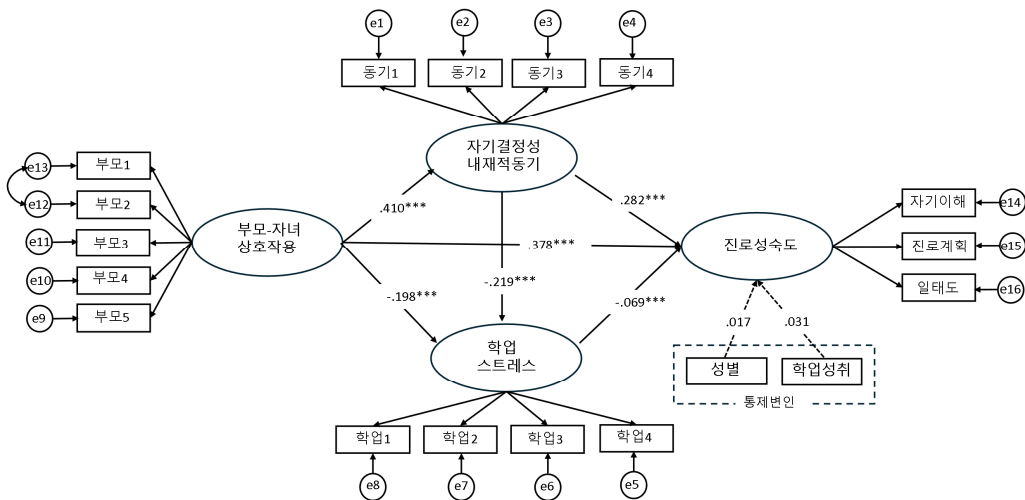
매개변수들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첫번째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학업스트레스($\beta=-.219, p<.001$)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덜 체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는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beta=.282,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어서 두번째 매개변수인 학업스트레스는 진로성숙도 ($\beta=-.069$, $p<.001$)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β		
부모-자녀 상호작용	→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304	.410	.012	25.778***
	→ 학업스트레스	-.216	-.198	.019	-11.087***
	→ 진로성숙도	.266	.378	.011	21.698***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 학업스트레스	-.323	-.219	.026	-12.556***
	→ 진로성숙도	.237	.282	.014	17.164***
학업스트레스	→ 진로성숙도	-.040	-.069	.009	-4.486***
성별	→ 진로성숙도	.020	.017	.015	.183
학업성취	→ 진로성숙도	.022	.031	.009	.015

* $p<.05$, ** $p<.01$, *** $p<.001$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 $p<.001$

[그림 1] 최종구조모형의 경로계수

3) 매개효과 분석

(1) 효과의 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에 대한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78, p<.001$). 또한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beta=.282, p<.001$)와 학업스트레스($\beta=-.069, p<.001$)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직접효과도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였으며,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beta=.410, p<.001$)와 학업스트레스($\beta=-.198,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의 곱을 통해 산출된 특정 간접효과로 산출된다(배병렬, 2014).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16(.410 \times .282)$ 이며, 학업스트레스를 통해 나타나는 간접효과는 $.014(-.198 \times -.069)$ 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이중 매개경로를 통한 간접효과는 $.006(.410 \times -.219 \times -.069)$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136(.116+.014+.006)$ 이며,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구조모형에서 산출된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값인 $.513(.378 +.135)$ 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진로성숙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및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도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 자기결정성 내재적동기	.410		.410
	→ 학업스트레스	-.198***	-.090	-.288
	→ 진로성숙도	.378	.135	.513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 학업스트레스	-.219***		
	→ 진로성숙도	.282	.015	.297
학업스트레스	→ 진로성숙도	-.069***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 $p < .05$, ** $p < .01$, *** $p < .001$

(2) 전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가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95% 신뢰구간에서 2000회의 부트스트랩을 통해 반복 추출한 표본에서 매개효과 회귀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도출하였다. 전체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신뢰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영가설을 기각하여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매개효과는 하한값이 .074, 상한값은 .097로 나타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가설을 기각하고 전체 매개효과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9> 전체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bounds	Upper bounds
부모-자녀 상호작용→진로성숙도	.074	.097

(3) 개별 및 이중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개별 및 이중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첫번째 매개변수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의 회귀계수는 .072($p < .001$)이며, 두번째 매개변수인 학업스트레스의 회귀계수는 .009($p < .01$)로 두 경로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습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004($p < .001$)이며 부트스트래핑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10>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진로성숙도	.072***	[.062, .083]
부모-자녀 상호작용 → 학습스트레스→진로성숙도	.009**	[.004, .013]
부모-자녀 상호작용→자기결정성 내재적동기→학습스트레스→진로성숙도	.004***	[.002, .006]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습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생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이영광 외, 2019; 이선영·송주연, 2019; 김양분·강호수, 2017; 선헌연·김계현, 2007; 이은경, 2001) 부모지원 또는 유대관계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최은영·윤영, 2021; 이문희·신효정, 2015; 김아름·최보영·이지희, 2010; 박효희·성태제, 2008)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관련된 다양한 부모 요인 중에서도 대화 및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을 포함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청소년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진로성숙에 의미

있는 수준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청소년의 기본 심리 욕구 충족을 도와 자기결정성 동기를 높이는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진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이 높고 내재적 동기가 충만한 학생일수록 진로 준비 행동 등 진로성숙도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김하영 외, 2018; 백연옥·심혜숙, 2015; 황매향·임은미, 2004)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라는 환경적 요인이 자녀의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학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감소된 학업스트레스는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자녀의 정서적 안녕감을 높여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지연, 2018; 김유정·이은미, 2016)와 부합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에 비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으로 중학생들이 시험 부담을 적게 느끼게 되어 전반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시기에서 학생들의 내적 동기 부여가 스트레스 관리보다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즉,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높은 청소년은 내재적 동기가 향상되고, 그로 인해 학업스트레스의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중 매개 경로의 유의성은 청소년의 동기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로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은 학생은 학업에 대한 내적 의지가 강해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잘 극복하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관리되는 상태에서 진로탐색 행동이나 진로 결정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를 통해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스트레스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

첫째,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해 자녀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도록 하고 진로와 관련된 대화 및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 그동안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오해와 우려로 인해 자유학기제 정책은 다소 불안정하게 진행되어 왔다(박균열, 2023).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본래의 정책적 의도는 학업성취보다는 진로발달과 자기주도학습능력 배양과 같은 미래역량 함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수혜·신수영, 2023). 따라서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적을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자녀와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 2024 초·중등 진로교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주최의 교육 설명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아(교육부, 2024) 이를 활용하여 학부모 대상의 자유학기제 인식 개선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상호작용 기술을 배우고, 진로에 대해 대화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자녀가 주체적인 내적 동기를 강화하며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할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부모가 쉽게 접근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 워크북 등을 마련하고 소개함으로써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자녀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진로 검사 도구와 정보 플랫폼을 소개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진로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자녀의 총체적인 진로 발달 과업 수행은 점점 더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유정아·황재원·박지아,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 검사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초기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크넷, 커리어넷과 같은 공공 진로 플랫폼은 진로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검사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공유하여 활용하는 데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진로 검사를 단순히 실시하고 결과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진로 검사 도구와 플랫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연습해 보도록

한다면,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자녀의 학습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과정을 더 촉진하기 위해 교내 진로전담교사를 활용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나 학업에 대한 고민을 자녀와 함께 논의할 때,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부모에게 학업 및 진로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와 자녀의 학습스트레스 원인 탐색 및 이해하는 과정에 함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부모와 자녀를 함께 면담하거나 부모를 단독으로 상담하여 부모의 자율성지지 수준, 가정 내 대화 구조, 학습스트레스 완화 전략 등을 확인하고 부모와 자녀가 진로를 포함한 상호작용을 더욱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발달 수준과 자율성을 고려한 공감적인 소통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더욱 유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진로 활동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이후 자녀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향상과 학습스트레스 감소 여부와 같은 변화를 교내 진로상담을 통해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심리적 변화를 연계한 평가 지표와 부모-자녀 상호작용 촉진 및 진로 탐색 지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과 심리적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실천적으로 가정과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향후 더욱 부모 대상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심화된 연구들이 지속되어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초기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경필 · 심미영(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5(6), 379-391.
- 곽연옥(2013).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원, 자기결정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5).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24). 초 ·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교육부
- 구본용 · 유제민(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71-187.
- 김동심(2017).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교육성과 변화 분석- 진로성숙도, 인지적·정의적·사회적 핵심역향, 학교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0(3), 101-121.
- 김동일(2014. 12. 26.). 죽어가는 공교육 자유학기제로 살리자. 중앙일보.
<http://www.joonang.co.kr/article/16785270>.
- 김위정(201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진학 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자료집**, 2017(3), 88-113.
- 길혜지 · 윤지운(2015). 고등학생 유형 결정요인 탐색: 진로성숙도와 성취도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4(6), 73-91.
- 김규연 · 김창대(2024).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5(2), 25-42.
- 김수혜 · 신수영.(2023).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자유학기제 효과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4(1), 1-31.
- 김리나(2024). 자유학기제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단기·장기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62(1), 31 - 61.
- 김민성 · 신태수 · 허유성(2020). 중·고등학교 전환 시기 교사-학생관계 유형의 변화와 유형별 학습동기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5), 795-824.
- 김봉환(2023).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동향 분석. **진로교육연구**, 36(4), 1-24.
- 김성현 · 백현옥(2020). 학부모의 정서관리 훈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효과. **교정복지연구**, 69, 57-79.
- 김아름 · 최보영 · 이지희(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 년 종단연구 -성별 및 부모· 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42-862.
-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양분 · 김성식 · 박성호 · 민병철 · 강상진 · 김현철 · 신종호(2006).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Ⅱ)(KEDI 연구보고) RR 2006-22.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 · 남궁지영 · 박경호 · 최인희 · 김미숙 · 강호수(2016). 한국교육종단연구2013(Ⅳ):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Ⅰ)(KEDI 연구보고) RR2016-16-01. 한국교육개발원.

- 김유정 · 이은미(2016).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한호교육학회지**, 22(3), 326-333.
- 김청아 · 남궁지영(2018). 중학생의 교육성파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교육학연구**, 56(1), 219-244.
- 김종백 · 김준엽(2009). 학업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하영 · 강한솔 · 한운선(2018). 초기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잠재유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1(4).
- 도미향 · 김은영(2024).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부모교육연구**, 21(1), 29-47.
- 동해인(2019). 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 학업적스트레스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찬주 · 정동욱(2020).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이 진로 발달 및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1(3), 755-777.
- 박균열(2023). 자유학기제 발전 방안의 전략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40(4), 161-183.
- 박미란 · 이지연(2010). 진로성숙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 검증. **인간이해**, 31(1), 65-88.
- 박성희 · 김희화(2008).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3), 158-182.
- 박소영 · 정혜원(2022).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주요 설명변인 및 변화 양상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33(2), 87-115.
- 박예은 · 정예원(202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5), 275-304.
- 박지현(2020).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연구- 자아존중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3), 329-344.
- 박찬호 · 김선미 · 유신복(2021).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 성별 차이에 대한 다집단 분석의 적용. **교육문화연구**, 27(5), 541-561.
- 박희희 · 성태제(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 배병훈 · 신희천(2009). 자기결정성과 학업 꾸물거림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747-764.
- 백경선(201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동기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연옥 · 심혜숙(2015).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진로장벽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5(1), 59-74.
- 류진숙(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봉언 · 이수민 · 조승우 · 김정식(2023).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자치활동수준, 창

- 의적체험활동,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 **중등교육연구**, 71(4), 695-726.
- 선혜연·김계현(2007).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1997년~2006년. **상담학연구**, 8(4), 1467-1483.
- 신철균·박민정(2015).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 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3(1), 300-338.
- 여태철(2015).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낙관성과 자기결정성의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25-42.
- 유정이·황재원·박지아(2009).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진로지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3), 71-96.
- 이문희·신효정(2015). 부모의 학업지지와 자녀의 진로성숙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1(3), 131-151.
- 이뿐새(2017). 부모의 교육참여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를 통한 주관적 행복의 매개된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37(0), 147-177.
- 이선영·송주연(2019). 청소년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자기이해, 진로계획성의 구조적 관계: 종단적 변화 검증. **교육문화연구**, 25(4), 27-50.
- 이영광·양인준·이승엽(2019).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51(4), 101-126.
- 이예진·이기학(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29(2), 267-287.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2017).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적 성과의 관계: 동일시 조절과 내사 조절의 효과 재조명: 동일시 조절과 내사 조절의 효과 재조명. **교육심리연구**, 31(4), 713-743.
- 이재혁·박재우(2019). 청소년의 부모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발달 궤적: 자기효능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2), 95-121.
- 이지연(201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개방형 의사소통을 통한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09). 예비교사들의 자아개념, 자기결정성과 교사신념과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3), 119-139.
- 이필남(2020). 자유학기제 효과 분석: 기대와 우려에 대한 계량적 접근. **교육재정경제연구**, 29(2), 61-82.
- 이한열(201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학습동기와의 관련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김순미(2007).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지각된 부모 지지가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6(3), 25-43.
- 임용우(1994). 시험스트레스 과정에서의 불안, 대처 및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미(2019).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진로 성숙도의 조절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정(2022). 초기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탐색. **교육과학연구**, 53(1), 133-153.
- 임혜인(2019). 내재적 동기의 뇌과학적 이해와 교육의 시사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전미리 · 김봉환(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인지·행동적 변인의 영향-사회인지 진로이론의 관점.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정경화 · 김기승(2018). 중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19(10), 475- 482.
- 정유미 · 김혁곤(200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교육상담연구**, 1(1), 1-22.
- 조민제(2010).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가 취업 불안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5(2), 47-60.
- 조성경 · 김민제 · 박근아 · 서정은 · 이보미(2018).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4), 41-68.
- 조아라(2013). 한국판 부모 진로 관련 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 · 김아영 · 이은경 · 김봉환(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 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21(4), 923-944.
- 최윤정 · 김지은(2012).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다수준 분석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13(2), 81-106.
- 최은영 · 윤영(2021). 중학생의 부모지원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9(2), 279-305.
- 최은혜 · 임효진(2022). 청소년기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조절 학습 전략, 진로성숙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초등교육연구**, 35(3), 217-238.
- 최은희(2015).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307-316.
- 최인희(2019).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의 변화와 영향요인 탐색. **한국교육**, 46(1), 161-186.
- 하은진(2015).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기조절학습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매향 · 임은미(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홍윤경(2021).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에 따른 다집단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윤경 · 최혜진(2024).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다중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1), 5-28.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357.
- Crites, J. O.(1978). Administration and use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2nd ed.). Monterey, CA: CTB/McGraw-Hill.
- Deci, E. L., & Ryan, R. M.(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 - 268.
- Grotevant, H. D. (1998). Adolescent development in family contexts.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1097-1149). John Wiley & Sons.
- Ryan, R. M., & Deci, E. L.(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2(3-33), 36.
- Peterson, G. W., & Bush, K. R.(2003). Parenting, adolescence. In *Encyclopedia of primary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pp. 780-788). Springer, Boston, MA.
- Super, D. E.(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12.
- Sharf, R. S.(200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4th. CA: Thomson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on Career Maturit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Free Semester Program: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Stress

Lee, Min Young* · Kang, Ji 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 child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Free Semester Program. Data were obtained from the third wave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2013. After excluding students from schools that did not implement the program, the final sample consisted of 5,366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who completed all relevant item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 - child interac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tudents' career maturity. Second, parent - child interaction indirectly influenced career maturity through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indicating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ird, academic stress also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 child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Fourth, a sequential dual mediation pathway was identified, showing that parent - child interaction affected career maturity indirectly through both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stress in sequen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the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during the Free Semester Program. These include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implementing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utilizing online platforms.

Keywords : parent-child interaction, Free Semester Program, career maturity, self-determined intrinsic motivation, academic stress

* Master's Degree i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Professor, Division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